



특집 _ 미국 입양 한인, 유전자 검사로 40년 만에 친가족 만나
 재외동포청, 혈액 증양 재외동포에게 조혈모세포 이식 지원
 재외동포청, 올해 한인 차세대 2천명 초청 모국 연수 진행
 정책 돋보기 _ 재외동포청, '찾아가는 통합민원 서비스' 개시
 재외동포청, 정책자문위원 11명 위촉... 위원장에 박인기 교수
 이슈 & 화제 _ 22대 총선 재외선거 투표율 62.8% 기록





K-종이접기로 새 한류 창조와 세계평화 증진에 이바지하자



노영혜
재단법인 종이문화재단 ·
세계종이접기연합 이사장

700만 재외동포는 지구촌 곳곳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며 고국과 고국의 문화를 알리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들은 한국의 훌륭한 고마운 민간 외교관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이 거주국 주류사회에 진출해 안정적으로 정착한다는 것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고국과 잘 상생함을 입증하는 것이다.

‘K-종이접기’(Korea Jongie Juggi: Paper Folding)는 재외동포들의 관심과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 K-종이접기는 ‘새 한류 창조와 세계평화를 위한다’는 모토 아래 세계 각국에서 활발하게 퍼져나가고 있다.

문명의 산물로 친환경적인 종이는 지혜와 평화를 상징한다. 종이접기는 수학이자 과학이요 예술이다. 캐나다의 신경외과 의사이자 대뇌 생리학자인 와일더 펜필드(Wilder Penfield, 1891~1976) 박사는 “손은 밖에 있는 뇌”라고 표현하면서 “손을 쓰다는 것은 곧 뇌를 쓰는 것으로, 손재간이 있는 사람이 머리가 좋다”고 역설한 바 있다. 양손을 사용하는 종이접기는 두뇌활동을 향상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하면 기술, 예술, 과학, 문학, 공예, 컴퓨터 등 중요한 창조 활동을 잘할 수 있다는 의미로 확대해석할 수 있다.

21세기의 문화예술과 정보화시대에 미래를 결정짓는 키워드는 ‘창조력’이다. 종이접기를 통해 수백 수천 가지의 서로 다른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 창조력을 잘 발휘하는 것으로, 재외동포 차세대의 정체성 함양과 창의 인성교육, 인간성 회복 운동 등에도 긴요하다.

문·벽·천장 등에 종이를 사용한 나라는 있지만, 방바닥에까지 종이로 만든 장판을 사용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K-종이접기는 세계 제일의 종이 문화 나라인 한국의 얼과 혼이 담긴 전통문화 유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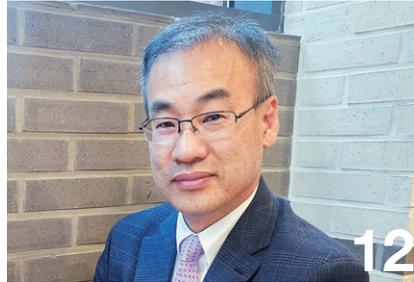
한국인들은 종이접기 모태인 고깔을 만들어 머리에 쓰고 소원을 빌고, 춤을 추며 노래를 했다. 고깔을 한 번 더 접어 종이배를 만든 뒤 소망을 담아 시냇물에 띄워 보내기도 했다. 종이를 많이 접으면 지혜로워진다는 ‘지혜지’라는 별명을 가진 딱지를 접어 꿈 따먹기 놀이를 하고, 방패연과 종이비행기를 만든 뒤 희망을 담아 하늘에 날려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일제강점기 36년 동안의 한국문화 말살 정책과 한국 전쟁 등 격동기를 거치면서 우리 조상들이 이뤄놓은 우수한 종이접기 문화는 제대로 전승 발전하지 못해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다.

필자는 1987년부터 종이접기 문화 부활 및 재창조 운동을 주창하면서 지금까지 K-종이접기 강사를 30만명 이상 양성해왔다. 종이접기를 K-컬처의 하나로 세계에 꽃피우기 위해 자긍심과 사명감을 갖고 활동하고 있다. 그런 활동의 하나로 한민족의 핵심 가치인 ‘홍익인간’(弘益人間)의 뜻을 담은, 겸손하게 기도하며 받드는 모습의 고깔(천(天)·지(地)·인(人) 사상을 담은 삼신 모자)을 남북한 인구와 재외동포 수를 상징하는 8천만개를 만들기도 했다.

우수하고 오래된 한국의 종이 문화와 K-종이접기를 세계 각국의 문화학습 센터와 재외동포 교육기관, 한국문화원, 세종학당 등에서 축제와 이벤트용으로 적극 활용해 새 한류 창조와 세계평화 증진에 이바지해보자. **창**





- 02 창을 열며** K-중이접기로 새 한류 창조와 세계평화 증진에 이바지하자
노영혜 재단법인 종이문화재단 · 세계중이접기연합 이사장
- 04 특집** 미국 입양 한인, 유전자 검사로 40년 만에 친가족 만나
재외동포청, 혈액 중앙 재외동포에게 조혈모세포 이식 지원
재외동포청, 올해 한인 차세대 2천명 초청 모국 연수 진행
- 06 정책 돋보기** 재외동포청, ‘찾아가는 통합민원 서비스’ 개시
재외동포청, 정책자문위원 11명 위촉... 위원장에 박인기 교수
- 08 이슈 & 화제** 22대 총선 재외선거 투표율 62.8% 기록
- 10 한민족 공감** “뉴질랜드 이민 와 따돌림 당했지만 한국인 DNA 잊지 않았어요”
- 12 글로벌 코리안**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차기 회장 “연구개발 국제협력에 초점”
한인 1.5세 줄리 석, 미국 뉴욕주 ‘여성평등 챔피언’에 선정
김철용 한키르기스친선협회장, 키르기스농업대 명예교수에 위촉
- 14 인터뷰** ‘사할린 한인 학살’ 소재 그림책 낸 장경선 아동문학가
- 15 주목! 차세대** 미국 버지니아주 첫 한인 연방지법 판사에 재스민 윤
- 16 지구촌 통신원** 해외 한류 경험자 66% “한국에 대한 인식 긍정 변화”
- 18 뉴스 속으로** 미국 한인 배우 겸 감독 아널드 전, 한국전쟁 소재 영화 제작 외
- 20 문화유산** 근대문화 도시 전북 군산시
건축물로 역사 탐색해보다
- 22 OKA 뉴스** 재외동포정책실무위 회의, 올해 정책 시행계획 안건 심의 외
- 24 동포 캘린더** 프랑스 한인 미술작가 3명, 생망데 ‘제2회 한불예술제’에 초청 외
- 25 기고문** ‘세계 시민사회의 주축’이 될 차세대 재외동포를 잘 교육하려면
김중섭 경희대 국제교육원 원장
- 26 재외동포청 공지**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유공 포상 후보자 공모 외

발행인: 이기철
발행처: 재외동포청
 주소: (우22009)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41, 부영송도타워 34~36층
 전화: +82-32-585-3100, www.oka.go.kr
 인스타그램: @overseas_koreans_agency
 페이스북: facebook.com/oka202365
 유튜브: @OKAKOREA
 기획·편집: 재외동포청 제작: 연합뉴스

재외동포청(Overseas Koreans Agency)은 외교부의 외청으로 전 세계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 수립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입양 한인, 유전자 검사로 40년 만에 친가족 만나

벤저민 박, 재외동포청 등 도움으로 친모와 화상 상봉

다섯살에 어머니를 찾겠다며 집을 나갔다가 실종된 후 미국으로 입양된 한인이 유전자 검사를 통해 40년 만에 친가족과 상봉했다. 재외동포청과 경찰청, 아동권리보장원은 합동으로 진행한 '무연고 해외입양인 유전자 검사 제도'를 통해 미국 입양 한인 벤저민 박(한국명 박동수·45)씨가 3월 18일 어머니 이애연(83)씨 등 친가족을 화상으로 만났다고 최근 밝혔다.

정부는 2020년부터 34개 재외공관을 통해 무연고 해외 입양 한인의 유전자를 채취해 한국 실종자 가족과 대조하는 유전자 검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가족을 찾은 사례는 이번이 다섯 번째다.

재외동포청에 따르면 이씨는 1980년 박씨를 포함한 4남매를 경남 김해의 큰집에 잠시 맡겼다. 남매들은 1984년 어머니를 찾겠다며 집을 나갔다가 실종됐고, 박씨는 보호 시설과 입양 기관인 대한사회복지회를 거쳐 이듬해 미국으로 입양됐다.

미국의 한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박씨는 2001년 모국 땅을 처음 밟았다. 헤어진 가족을 찾자 입양 기관을 찾았지만, 가족을 찾을 수 있는 단서는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박씨는 미국으로 돌아갔고, 2012년 재입국해 대구에 있는 계명대학교 어학당을 다니던 중 경찰서를 방문해 유전자를 등록했다. 하지만 당시에도 일치하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고, 박씨는 2016년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다.

한편 한국에 거주하고 있던 박씨의 친형도 2021년 10월 '실종된 두 남매를 찾고 싶다'며 실종신고를 하면서 어머니 이씨의 유전자를 등록했다. 이듬해 8월에는 박씨와 이씨가 친자 관계일 가능성이 크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이 나오면서 가족 상봉이 가능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다.

그러나 박씨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계명대 어학당 재학 시 사용한 이메일 주소 외에 남은 연락처가 없어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제주경찰청은 장기 실종 중인 박씨의 소재 확인을 위해 제주경찰청 소속 미제수사팀으로 사건을 이관해 집중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팀은 출입국·외국인청과의 협조와 누리 소통망을 활용한 조사로 박씨의 미국 내 과거 거주지를 확인했다. 또 경찰청을 통



벤저민 박씨(스크린 속 인물)와 어머니 이애연씨(왼쪽에서 5번째)가 화상 상봉을 한 후 가족 및 도움을 준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해 시카고 주재 한국 총영사관과 협조해 최종 소재지를 파악했다. 이후 국과수의 2차 감정을 통해 지난 2월 최종적으로 박씨가 이씨의 친자임이 확인됐다.

벤저민 박 “가족 찾게 해준 한국 정부에 감사”

경찰청은 박씨와 가족들의 상봉을 주선하고 일정 등을 조율해 마침내 상봉이 이뤄졌다. 상봉은 당장 입국이 어려운 박씨가 화상이라도 먼저 가족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어머니가 입소한 요양 시설에서 화상으로 이뤄졌다.

박씨는 “친가족과 재회하게 된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가족을 찾을 수 있게 도움을 준 한국 정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고, 그의 친형은 “아직 찾지 못한 여동생 진미(47)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뿌리를 찾고 싶어 하는 모든 해외 입양 동포가 가족 찾기를 통해 정체성을 회복하고, 한국이 자신을 소중한 존재로 여전히 기억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번 사례가 더 많은 실종아동을 찾는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고,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상봉 이후 개명, 가족관계 정리, 심리 상담 등 사후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재외동포청, 혈액 증양 재외동포에게 조혈모세포 이식 지원

전 세계 51개 재외공관과 106개 한인회에 홍보자료 배포

재외동포청은 난치성 혈액 증양을 앓는 재외동포들에게 희망을 주는 조혈모세포 이식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조혈모세포는 자기 복제·분화로 백혈구와 적혈구, 혈소판 등의 혈액세포를 만들어 내는 어머니 세포로 다양한 혈액암 치료에 사용되고 있다.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 보듬기 사업'의 하나로 최근 전 세계 51개 재외공관과 106개 한인회에 '재외동포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 지원 사업'에 관한 안내 책자 등 홍보자료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재외동포도 원활하게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KMDP)와 협약을 맺은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재외동포청 홍보자료는 기증희망자 모집사업을 비롯해 재외동

포 혈연 간 조혈모세포 이식 진행 시 상담과 검체 채취 등을 지원하는 이식조정 지원 사업, 재외동포의 조혈모세포 채취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환자치료비 지원 사업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그동안 거주 국가에서 타인종 간의 낮은 사람백혈구항원(HLA) 일치 확률로 혈액 증양 치료에 어려움을 겪었던 재외동포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재외동포 조혈모세포 이식 지원 사업 안내문

재외동포청, 올해 한인 차세대 2천명 초청 모국 연수 진행

역대 최대 규모... 총 8회에 걸쳐 일주일씩 실시

재외동포청은 동포사회의 미래 주역인 차세대가 모국과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2천명을 국내로 초청해 연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행사 이름은 '2024 재외동포 초청 연수'로 동포 청소년 및 대학생이 대상이다. 인원은 지난해 1천307명 대비 53%가 늘어났다. 연수는 하계기간인 오는 7~8월에 6회에 걸쳐 1천800명, 겨울방학 기간인 내년 1월에 2회에 걸쳐 200명 등 총 8회로 나눠 일주일씩 실시된다.

연수는 동포 차세대가 정치·경제·사회·문화·역사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한국의 발전상을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한인 정체성을 세우고 모국에 대한 자긍심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한국의 정치·경제 발전상 체험 프로그램을 추가한다. 또 한국 역사 이해, 유적지 탐방과 지역문화 체험, 세계시민 교육 등을 통한 글로벌 리더십 육성 교육도 진행한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재외동포청은 차세대의 정체성 함양과



'2023 재외동포 대학생 모국 연수' 당시의 한 장면

주류사회 진출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차세대의 모국 방문 기회를 지속해 확대하고 연수를 계기로 동포사회 리더로 성장해 모국과 상생해 나가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계 연수 참가는 오는 4월 22일까지 거주지 관할 공관으로 신청하면 검토를 거쳐 선정 여부를 오는 5월 10일 이후에 개별 통보한다. **장**

재외동포청, '찾아가는 통합민원 서비스' 개시

재일동포 시작으로 국적·병무·가족관계 등 민원 화상 상담
재외동포 국내 디지털 공공·금융서비스 이용 문턱도 낮춰

재외동포청은 국적과 병무, 가족관계 등 재외동포 대상 민원 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온라인 화상을 활용한 '찾아가는 통합민원 서비스'를 4월 3일 시작했다. 재외동포청이 수립한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에 들어있는 '편리한 동포 생활' 항목의 구현을 위한 사업이다.

재외동포청 산하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센터장 김연식, 서울 종로구 소재)는 이날 일본의 고베, 요코하마, 히로시마 지역 동포를 화상으로 연결해 국적·병역·가족관계 등 동포사회 주요 민원과 관련해 궁금한 점을 풀어줬다. 화상 상담은 우리말이 서툰 동포를 위해 일본어 통역 서비스도 지원했다. 이번 비대면 화상 서비스의 시행에 관심을 보인 주한일본대사관은 직원을 보내 전 과정을 참관하기도 했다.

김연식 센터장은 "일본을 시작으로 지역을 계속 확대해 재외동포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더욱 친밀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청은 이 밖에도 재외동포가 언제나 편리하게 365민원 콜센터(02-6747-0404)에서 5개국(한·영·일·중·러) 언어로 전화와 카톡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서비스도 업그레이드했다.

재외동포청은 올해부터 화상으로 찾아가는 통합민원 서비스를 상시로 운영한다. 또 국적·병역 설명회 진행 과정이나 필요한 경우 재외공관을 방문·대면으로 찾아가는 통합민원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이밖에 재외동포들이 국내 수준의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민원 절차를 간소화한다. 특히 필요한 경우 직접 현장을 찾아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업무를 발굴·개선하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국내 계좌 없는 재외동포도 어디서나 금융인증서로 본인인증 가능

한편, 이기철 재외동포청장과 박종석 금융결제원장은 국내 계좌가 없는 재외국민도 국내 디지털 공공·금융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 금융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개시



재외동포청의 '찾아가는 통합민원 서비스'가 4월 3일 재외동포들을 대상으로 화상으로 진행되는 모습

하기 위해 4월 23일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에서 '디지털 인증·증명 분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서비스는 동포청이 추진하는 국정과제 '디지털 영사 민원 시스템 구축 사업'의 하나로 추진됐다. 지금까지 해외 체류 재외국민이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인증 수단인 국내 휴대전화 또는 국내 계좌가 필요했으나, 이번 서비스로 이것이 없는 재외국민도 재외공관에서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 국내 수준의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게 됐다.

'재외공관 금융인증서 발급 서비스'는 지난 3월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으며, 4월 재외공관 실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서비스 시범 운영을 거쳐 5월 정식 시작될 예정이다. 서비스가 개시되면 재외국민은 가까운 재외공관을 방문해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권(은행, 증권, 카드, 보험, 저축 등) ▲정부·공공(정부24, 홈택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 ▲마이데이터 등을 이전보다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기철 청장은 "재외국민은 이번 재외 공관 금융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통해 앞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서비스를 받게 됐다"며 "그간 국내 디지털 서비스 이용에 소외됐던 재외국민이 조금 더 편리함을 체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재외동포청, 정책자문위원 11명 위촉 위원장에 박인기 교수

위원들, 첫 전체 회의서 한국 발전상 알리기 등 주요 사업에 공감

재외동포청은 4월 11일 인천 연수구에 있는 재외동포청 청사에서 정책자문위원 위촉식을 열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재외동포 정책과 주요 사업과 관련, 각계 전문가의 심층적·포괄적 자문 및 현안에 대해 수시로 논의하기 위해 설치됐으며 재외동포, 언론, 교육, 경제 등 11명이 초대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위촉식에는 박인기 경인교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고상구 베트남 K&K 트레이딩 회장, 이진영 인하대 교수, 최미영 미국 다솜학교 교장, 박기태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 단장 등 11명이 참석했다. 이기철 청장 등 재외동포청 주요 간부도 참여한 이날 전체 회의에서 박 명예교수는 초대 정책자문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이 청장은 위촉식에서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차세대의 정체성 함양과 국격에 걸맞은 동포 보호·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구축 등 주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문위원들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회의를 주재한 이 청장은 한국의 정치·경제 발전상 알리기, 국내 거주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지원 등 재외동포청 주요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재외동포청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 제안을 당부했다.

특히 이 청장은 재외동포에 대한 한국의 정치·경제 발전상 교육과 해외 교과서에 이를 수록하는 프로젝트가 동포청의 핵심사업이라고 소개하면서, “차세대 동포의 자긍심을 높이고 정체성을 함양하는 동시에 거주국 내 한인들의 지위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문위원들은 한국의 발전상 알리기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공감을 표명했으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자문을 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정책자문위원장으로 위촉된 박인기 교수는 교과서의 파급력과 지속성을 감안할 때, 재외동포청의 발전상 알리기 사업이 매우 효과적이고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한다면서, 위원장으



4월 11일 인천 연수구 소재 재외동포청 청사에서 열린 정책자문위원 위촉식에서 자문위원들이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왼쪽에서 5번째)과 함께 단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4월 11일 재외동포청 청사에서 열린 정책자문위원 전체 회의 모습

로서 사업의 성공을 위해 위원들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고령 동포의 모국 귀환 등 국내 동포 증가에 따른 다양한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동포의 정착 지원 대책 마련과 이를 담당할 전담 부서 신설 필요성에도 전적으로 공감했다.

재외동포청은 앞으로 자문위원들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정책 추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전체 회의 및 분과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 내실 있는 자문기구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창**

22대 총선 재외선거 투표율 62.8% 기록

선거권자 197만명 중 27.8% 등록... 실제 투표자는 4.7%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엿새간 전 세계 115개국(178개 재외공관) 220개 투표소에서 실시된 제22대 총선 재외선거에서 투표율이 역대 총선 최고치인 62.8%를 기록했지만, 동포사회에서는 “아쉽다”는 반응도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재외동포 사회 등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재외동포 수는 708만명이고 이 중 이번 총선에서 투표가 가능한 18세 이상 재외선거권자는 197만4천375명(27.8%)이다. 이번 총선에 참여하기 위해 등록한 유권자는 14만7천989명(7.5%)으로 이 가운데 9만2천923명(62.8%)이 투표에 참여했다. 그러나 투표자 수를 전체 재외선거권자에 대비한 실제 투표율은 4.7%에 그쳤다.

각 지역 한인회는 동포들의 투표 참여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았으며 긍정적인 분위기를 소개했다. 대륙별 투표자 수가 가장 많은 아주 지역을 대표하는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 측은 서로 경쟁하듯 한인회별 투표율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동포사회에서는 현지 대사관과 한인회 등을 중심으로 한 투표 독려 운동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재외동포들이 투

표를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 표 행사’ 왕복 1천600km 이동... “동포 편의 위해 법 개정 필요”

푸켓에서 방콕까지 왕복 1천600km를 이동했다는 태국 동포의 투표 후기가 소개되면서 이들의 편의를 위해 재외선거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이전에도 늘 제기된 문제였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허준혁 유엔한반도평화번영재단(유엔피스코) 사무총장은 “실제 투표율이 저조한 이유는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유권자 등록은 가능하지만, 투표하려면 여전히 재외공관이나 원거리 투표소를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이라며 “재외동포들의 오랜 염원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은숙 베트남 하노이한인회장은 “베트남 한인들 사이에서 선거 열기는 뜨거웠다. 다만 200만명이나 되는 재외선거권자 중에서 실제 투표로 이어진 비율은 낮아 아쉽다”며 “재외동포들이 좀 더 편리하게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간 동포사회에서는 투표율을 높이려면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우편투표나 이메일 전자투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미국은 우편투표와 함께 주에 따라 팩스, 이메일, 웹페이지 투표 등을 병행하고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다수 국가도 우편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1



2



3

재외동포 비례 의원 필요 주장 여전했지만 이번에도 불발

동포사회에서는 각 정당이 재외동포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을 영입해 비례대표 의원으로 활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2012년 재외선거가 시작된 이후 실현된 적은 아직 없다. 이번 총선에서도 여러 인사가 비례대표 후보를 신청했지만 모두 고배를 마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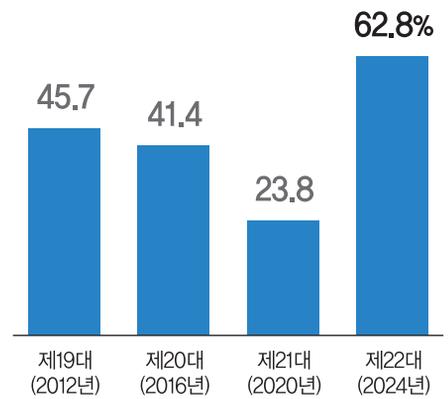
제임스 안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인회장은 “정부·여당은 물론 야당도 당선 안정권 여부를 떠나 단 1명의 재외동포도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하지 않은 데 대해 실망과 우려를 금치 못한다”며 “재외동포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국내 유권자가 지역구 대표를 뽑는 것처럼 각종 동포 관련 현안 등을 대변하는 후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나서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김점배 아프리카·중동한인회총연합회장은 “적극 참여자의 투표율은 높았겠지만, 실제 투표율은 5% 미만으로 해외에서 선거 열기가 갈수록 식어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며 “각 당에서는 진정한 참정권 보장을 위해 재외동포 비례대표를 대륙별 1명씩은 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재외동포의 비례대표 배정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노종현 전 싱가포르한인회장은 “각국 한인회는 자율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모국 국위 선양과 공공외교를 하면 되지 모국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불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싱가포르한인회는 한인 사회의 분열을 염려해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재외투표 비례정당 득표 결과는 조국혁신당(3만4천965표·37.6%),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당연합(2만5천84표·27.0%),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2만182표·21.7%), 개혁신당(2천915표·3.1%), 녹색정의당(2천891표·3.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254개 지역구 후보별 재외국민 투표 득표율은 별도로 집계되지 않았다. **참**

제19~20대 총선 재외선거 투표율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3월 27일(현지시간) 런던의 주영한국대사관 대회의실에서 한 재외국민이 선거 사무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22대 총선 투표지에 기표를 하고 있다(주영한국대사관 제공).
- 제22대 총선 재외투표 첫날인 3월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주재 한국 총영사관 앞에 걸린 재외투표 안내문
- 제22대 총선 재외투표가 시작된 3월 27일 일본 도쿄 총영사관에 마련된 재외투표소에서 윤덕민 주일한국대사 부부(왼쪽 두번째와 세번째)와 일행이 투표를 하고 있다.

“뉴질랜드 이민 와 따돌림 당했지만 한국인 DNA 잊지 않았어요”

외교관서 전업 작가 변신한 한인 1.5세 그레이시 김 “글쓰기도 외교”

“다민족·다문화 사회인 뉴질랜드이지만, 어릴 적 주변 친구 중에서 한국인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단지 이민자라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해 상처를 받기도 했죠. 하지만 한국인의 DNA(유전자)는 잊지 않았어요.”

뉴질랜드 외교관 출신 한인 1.5세 그레이시 김(한국명 김성은·38) 작가는 최근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기자와 만나 “나는 ‘코리안 키위’(Korean Kiwi·한국계 뉴질랜드인)다. 한국인이라는 게 자랑스럽다”며 이렇게 말했다.

2018년 한국으로 신혼여행을 왔던 김 작가는 주한뉴질랜드대사관 초청 프로그램 참석차 6년 만인 3월 말 다시 한국을 찾았다. 딸 하늘(5) 양이 태어나면서 이번에는 남편 닐 크리벤스(37) 씨와 함께 가족 셋 모두 방한했다.

그사이 그는 약 10년간 일한 외교통상부를 떠나 홀로서기를 택했다. 지난 2017년 중국 베이징 근무 시절 실명 위기에 처해 망막 수술을 받고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듬해 글쓰기를 시작했고, 전업 작가 활동을 위해 지난해 5월 퇴사했다.

판타지 소설 ‘천부의 일족’ 1편,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올라

2021년 5월 디즈니 출판사를 통해 선보인 어린이 판타지 소설 ‘천부의 일족’(The Gifted Clans) 시리즈 3부작 중 1편 ‘추락한 최후의 별’(The Last Fallen Star)은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등 주목을 받았다.

그는 “디아스포라(고국을 떠나 다른 지역에서 형성된 집단)를 모으면 한국인은 세계에서 3~4번째이지만, 재외동포가 주인공인 소설은 거의 없었다”며 “한국인도 외국인도 아닌 우리만의 정체성이 담긴 이야기를 쓰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더는 외교관이 아니지만 여전히 외교관으로 일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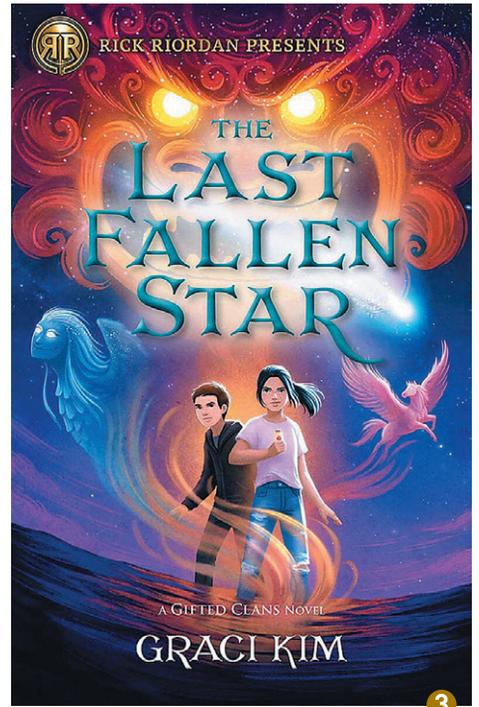


1

것과 마찬가지로”라며 “외교관을 그만둔 것에 후회는 없다. 글쓰기를 통해 세계 각국의 독자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는 것 역시 외교”라고 강조했다.

‘천부의 일족’ 시리즈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를 배경으로 창조신 마고할미 등 한국 신화 및 한국 전래동화에 자주 나오는 호랑이, 구미호, 까마귀, 해태 등을 소재로 활용해 현대적인 시각으로 그려낸 소설이다.

김 작가는 “어릴 때 할머니와 부모님이 귀신, 도깨비 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줬다”며 “그리스·로마 신화와 이집트 신화는 세계적으로 환영받는 데 비해 한국 신화는 잘 알려지지 않은 게 늘 의문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디즈니에서 이 소설을 원작으로 드라마를 제작하려고 했는데 할리우드 배우·작가 조합의 파업으로 인해 취소되면서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라며 “향후 좋은 제안이 들어온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1. 그레이시 김과 남편 닐 크리벤스, 딸 하늘을 담은 가족사진
2. 뉴질랜드 외교관 출신 한인 1.5세 그레이시 김 작가가 최근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언론 인터뷰를 하고 있다.
3. 그레이시 김의 판타지 소설 'The Last Fallen Star' (추락한 최후의 별)의 영문판 표지 (Yes24 제공)

“한국계 외국인 시선으로 쓰는 이야기들, 열린 마음으로 봐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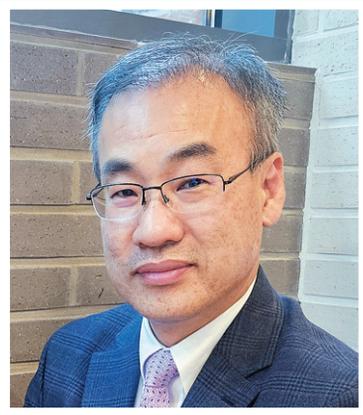
김 작가는 요즘 딸이 커가는 모습을 보며 “평범한 일상에 마술이 숨어있다는 걸 느낀다”고 했다. 또 “하늘이가 커서 이 책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란다. 책 속의 주인공처럼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독자들이 한국계 외국인의 시선에서 쓰는 이야기들을 ‘한국 신화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구나’ 하는 열린 마음으로 보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소설 1편은 내년 여름께, 2·3편은 순차적으로 다산북스가 한국어로 번역 출간할 예정이다.

김 작가는 내년 영미권에서 두 번째 판타지 소설 ‘드림슬링어’(Dreamslinger)도 출간할 계획이다. 일단 2편으로 구상하고 있

는데, 4편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엑스맨과 포켓몬이라는 콘셉트가 바탕이 되며, 자신의 꿈을 초능력으로 바꾸는 돌연변이 유전자를 가진 한국계 미국인 어린이 아리아가 정체성을 찾아가는 내용이다.

김 작가는 과거 요리 프로그램 진행자로 활동했고, 어린이들의 그림을 봉제 인형으로 만드는 사업을 하는 등 창의적인 근육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왔다. 여러 도전 속에서 성취와 실패를 맛보면서 그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길은 글쓰기였다.

그는 “인생의 마지막 길에 선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갖는지 살펴보고 싶은 생각이 있다”며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호스피스’에서 일하거나 자원봉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창**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차기 회장 “연구개발 국제협력에 초점” 한인 1.5세 오태환 회장, 8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학술대회 방향 설명

“글로벌 비즈니스 시대에 과학기술 분야에서 연구개발(R&D) 국제협력이 중요합니다. 대학 간 공동연구, 기업 간 협업, 학계·산업계·정부 등 여러 주체가 협력하는 형태 등 다양해요. 국제협력에 초점을 맞춰 중요 의제로 다루고자 합니다.”

오태환(57)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KSEA) 차기 회장은 4월 3일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기자와 만나 오는 8월 21~24일(현지시간) 나흘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하는 ‘제37회 한미과학기술학술대회(UKC)’의 방향성을 이렇게 설명했다.

올해 창립 53주년을 맞은 KSEA는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과학자 단체로, 등록 회원 3만명과 활동 회원 8천명을 두고 있다. KSEA가 한미 간 과학기술 교류를 위해 1991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UKC가 연중 가장 큰 사업이다.

KSEA는 통상 1년 전 회장을 미리 뽑아 UKC 행사를 준비한다. 국내 대학과 기업, 정부 등의 참여와 협력을 요청하기 위해 3월 30일 입국한 오 회장은 약 3주간 머무른 뒤 4월 중순 출국했다.

하얏트 리젠시 샌프란시스코 에어포트 호텔에서 열리는 대회는 KSEA,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KOFST), 한미과학기술협력센터(KUSCO), 한국연구재단(NRF)이 공동 주최한다. 주제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다음 시대의 과학, 기술, 그리고 기업이장 정신’이다.

오 회장은 “학문을 중심에 둔 연구도 중요하지만, 산업과 균형을 맞추는 게 장기적으로 과학기술계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며 “실리콘밸리 내 우수 기업들을 연결해 대회에 참가하게 함으로써 창업 분야도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회 기조 강연은 2013년 노벨생리의학상을 받은 토마스 쥐트호프 미국 스탠퍼드대 의대 교수와 앨리사 박(한국명 박아형)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 새뮤얼리 공과대학장이 맡는다.

12살에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 간 한인 1.5세인 오 회장은 텍사스공과대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했고, 서던 메소디스트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로체스터공과대 교수로 있다.

한인 1.5세 줄리 석, 미국 뉴욕주 ‘여성평등 챔피언’에 선정 포담대 법대 교수… 챔피언 7명 중 유일한 한인

한인 1.5세인 줄리 석(한국명 석지혜·49) 미국 포담대 법대 교수가 3월 ‘여성의 달’을 맞아 뉴욕주가 선정한 ‘여성 평등 챔피언’에 이름을 올렸다.

현지 동포사회 등에 따르면, 뉴욕주는 올버니 시에 위치한 뉴욕주청사 거버너스 리셉션룸에서 3월 1~29일 ‘평등의 챔피언들: 뉴욕 여성들과 평등권 수정안’ 전시회를 열었다. 전시회는 여성 평등권을 위해 투쟁해 온 여성 7명을 선정해 이들의 발자취를 소개하고



있으며, 한인으로서 석 교수가 유일하게 포함됐다.

석 교수 이외에도 미국 '진보의 아이콘'으로 불렸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전 연방 대 법관(1933~2020), 미국 의회 최초의 흑인 여성 하원의원을 지낸 셸리 치점(1924~2005) 등이 선정됐다.

뉴욕주는 석 교수에 대해 "평등권 수정안(ERA) 및 비준 운동에 관한 책 '위 더 우먼'을 (2020년에) 썼다"며 "법학과 역사학, 사회학, 정치학 등 학문의 경계를 아우르는 헌법 제정자로서의 여성에 초점을 맞추는 비교법학자"라고 소개했다.

석 교수는 4살 때 미국으로 이민해 뉴욕 퀸스에서 자랐다. 미국 하버드대에서 영문학과 불문학을 전공했고,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영국 옥스퍼드대에서는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하버드대와 예일대 등에서 객원교수를 지냈고, 뉴욕시립대 교수를 거쳐 포담대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는 2006년 한국계 최초로 하버드 로스쿨 교수에 임용되고, 2010년에는 아시아계 여성 최초로 하버드 로스쿨 중신교수로 임명된 석지영(51) 교수의 동생이다.



김철용 한키르기스친선협회장, 키르기스농업대 명예교수에 위촉 2015년 키르기스 건너가 한국 콩과 종자 관련 농업 종사

독립국가연합(CIS)의 주요 국가인 키르기스공화국(키르기스스탄)에서 10년째 한국 콩 및 종자 관련 농업에 종사하는 김철용(50) 한키르기스친선교류협회장이 최근 키르기스국립농업대 명예교수로 위촉됐다.

사단법인 한키르기스친선교류협회에 따르면, 리스벡 누르가지예프 키르기스국립농업대 총장은 최근 교내에서 위촉식을 열고 지난 2년간 이 학교 고문으로 일해온 김 회장에게 명예교수 위촉장을 전달했다.

키르기스국립농업대는 키르기스공화국 수도 비슈케크에 있는 학교로, 1933년에 설립됐다. 지난 90년간 식품·생물학 전문가 7만여명을 배출하는 등 농업 발전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 회장은 "해외에서 지내다 보니 한국은 참 큰 나라이고, 앞으로 더 클 가능성이 높은 나라라고 생각하게 된다"며 "한국 농부로서 한국의 농업 경쟁력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을 하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다.

그는 경북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대구를 중심으로 10년간 정치 일선에서 활동했다. 키르기스공화국과의 인연은 그가 2006~2008년 국회에서 비서로 일할 때 시작됐다. 한국과 키르기스공화국 간 협력 사업을 맡게 되면서 키르기스공화국으로 눈을 돌렸고, 2007년 한키르기스친선교류협회를 설립했다. 당시 농업 관련 아이템을 다룬 경험이 훗날 키르기스공화국에 정착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그는 2013년 농업회사법인 다산을 설립하고, 한국과 키르기스공화국으로 오가며 해외 농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2015년에는 가족들과 함께 한국을 떠나 키르기스공화국에 정착했다. 양파와 보리 등의 작물을 경작하며 시작해 한국 콩과 종자 관련 농업으로 분야를 넓혔다. **창**



‘사할린 한인 학살’ 소재 그림책 낸 장경선 아동문학가

‘그 여름의 사할린’ 최근 출간… “아픔 공감할 수 있기를”

“러시아 남부 사할린은 일제강점기에 많은 한국인이 강제 징용으로 끌려간 곳입니다. 아이들이 슬픈 역사를 이해하고, 그 아픔에 공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타인에 대한 배려라고 할 수 있죠.”

사할린 한인 학살 사건을 소재로 한 그림책 ‘그 여름의 사할린’ (도서출판 작은숲)을 4월 15일 출간한 아동문학가 장경선(48) 작가는 최근 언론과의 통화에서 “무거운 주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풀어내고자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패망한 후 사할린의 군경과 자경단 등은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킬지 모른다는 무차별 살해했다. 당시 소련군의 재판기록을 통해 밝혀진 바로는 카미시스카, 시크카, 에스토루, 미즈호 등에서 희생자가 나왔다. 장 작가가 그림책의 배경으로 한 사건은 약 35명의 한인이 희생된 것으로 알려진 미즈호(현 포자르스코예) 마을이다.

사할린에 3개월 거주하며 한인사 연구

장 작가는 2013년 7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학 분야 해외 창작거점 예술가파견사업’에 선정돼 3개월간 사할린주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 거주하면서 사할린 한인사(韓人史)를 연구했다. 일제강점기 등 근현대사를 소재로 한 글을 주로 써온 그는 사할린 동포 2세인 박승의 전 러시아 사할린국립대 한국어과 교수의 자택에 머물면서 사할린 곳곳을 답사하고 한인들을 인터뷰하면서 학살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고자 노력했다.

그는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2015년 3월 펴낸 동화집 ‘나는 까마귀였다’에서 미즈호 마을 학살 사건을 소재로 한 ‘나는 까마귀였다’와 ‘전채련 할머니의 눈물’ 등 두 편의 이야기를 선보였다. 이번에 출간한 그림책은 이 동화집 내용 일부를 뽑아 다듬고 정리한 것이다. 2018년에는 강제징용된 오빠를 따라 사할린으로 이주한 명자의 이야기를 다룬 그림책 ‘안녕, 명자’를 펴낸 바 있다.

장 작가는 “사할린을 소재로 하는 작품은 대부분 강제징용의 애환에 관한 이야기가 많다”며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 등 학살을 주로 다뤄온 입장에서 민간인 학살에 중점을 두다 보니 미즈호 마을에 관심을 두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림책 ‘그 여름의 사할린’ 출간한 장경선 아동문학가(왼쪽). 그림책 ‘그 여름의 사할린’ 표지(도서출판 작은숲 제공)

“미즈호 마을은 조선인과 일본인이 서로 결혼할 만큼 한 가족처럼 오순도순 정답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가슴을 더 아프게 한다”며 “아픈 역사는 철저히 묻혔기 때문에 다시 짚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책으로나마 일본이 공식 사과하는 모습 보여주고 싶었다”

그는 미즈호 마을의 두 친구인 일본인 소년 마쓰야마와 조선인 소녀 하나가 등장하는 이번 책에서 가해자인 일본인이 무릎을 꿇는 장면을 설정했다. 장 작가는 책으로나마 일본이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한다.

장 작가는 “사할린 남쪽 코르사코프의 ‘망향의 언덕’에는 조각배 모양의 위령탑이 있다. 붙어 있지 않고 갈라진 배가 그 날의 아픔을 말해 준다”며 “다행히 1990년 한러 수교 이후 마침내 사할린 한인들은 고향 땅을 밟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할린 수도 유즈노사할린스크는 아름다운 도시다. 최소한의 개발을 추구해 자연 속에 집과 건물을 만들었다”며 “적박한 땅을 풍요롭게 만든 건 우리 민족이었다. 사할린 한인들은 러시아인들과 어깨를 당당히 하고 산다”고 강조했다. **창**

미국 버지니아주 첫 한인 연방지법 판사에 재스민 윤

한인 1.5세 변호사... 오는 7월 임기 시작

미국 버지니아주 역사상 처음으로 한인이 연방 지방법원 판사에 올랐다. 동포사회에 따르면, 미국 연방상원은 최근 본회의를 열고 버지니아 동부 연방지방법원 판사로 지명된 한인 1.5세 재스민 윤(한국명 윤혜정·44) 변호사를 인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마크 워너, 팀 케인 연방 상원의원의 추천을 받아 지난 1월 윤 변호사를 연방지방법원 판사로 지명한다고 발표했고 이어 상원이 2개월 만에 인준한 것이다.

워너 의원과 케인 의원은 인준안 통과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버지니아주 첫 아시아계 미국인 연방 판사인 재스민 윤은 놀라운 실력을 갖췄고, 공직에 대한 깊은 헌신이 있다”며 “연방 사법부에 큰 자산이 될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윤 판사는 마이클 어밴스키 수석 판사가 퇴임하면 오는 7월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울산 출신의 윤 판사는 14살 때 가족과 함께 미국 메릴랜드주로 이민했다. 그는 버지니아대 법대와 로스쿨을 졸업한 뒤 로펌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이민자 및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무료 변론과 통역 봉사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해 로펌에서 ‘올해의 무료 변론 변호사상’을 받았다. 이후 버지니아 연방 동부 지방검찰청에서 6년 동안 검사로 일하면서 80여건의 금융 범죄 및 공직 부패 사건을 조사해 기소했다.

2019년부터는 3년간 버지니아대에서 법률 자문으로 활동했고, 2022년부터 최근까지 금융 서비스 기업 ‘캐피털 원 파이낸셜 코퍼레이션’에서 기업 윤리 및 조사 담당 부사장으로 일했다. 그의 남편 크리스토퍼 캐버노 씨는 버지니아 연방 서부 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일하고 있다.

윤 판사는 앞서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연방 판사로 임명된다면 이해충돌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창**



재스민 윤 미국 버지니아주 동부 연방지법 판사



해외 한류 경험자 66% “한국에 대한 인식 긍정 변화”

‘2024 해외 한류 실태조사’ 결과… 1인당 K-콘텐츠 월평균 11.6시간 소비

해외 한류 경험자 10명 중 6명가량은 한국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4월 2일 발표한 ‘2024 해외 한류 실태조사’ (2023년 기준)에 따르면, 해외에서 한국 문화콘텐츠를 접한 응답자 가운데 한국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 했다고 답한 비율이 66.1%로 조사됐다.

이는 2022년 60.3% 대비 5.8% 포인트(p) 늘어난 수치다. ‘변화가 없다’는 응답은 30.1%, ‘부정적으로 변화했다’는 응답은 3.8%였다. 국가별로는 아랍에미리트(85.9%)·인도(85.3%)·베트남(84.7%) 등에서 긍정적 변화가 컸고, 일본(38.8%)·이탈리아(48.7%)·프랑스(49.4%) 등에서 낮았다.

한국 문화콘텐츠에 대한 호감도 조사에서는 ‘마음에 든다’(호감)라고 답한 비율은 68.8%로 전년 대비 3.7%p 하락했다. 인도네시아(86.3%)·인도(84.5%)·태국 및 아랍에미리트(각각 83.0%)·베트남(82.9%) 등 주로 동남아시아에서 호감도가 높았다. 1년 전과 비교해 한국의 문화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증가(45.9%)했거나 비슷하다(43.5%)고 답한 비율은 총 89.4%였다.

증가 비율이 높은 국가는 이집트(67.6%)·인도(67.1%)·사우디아라비아(65.1%) 순으로, 중동 국가에서 지난 1년간 한국 문화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아졌음을 보여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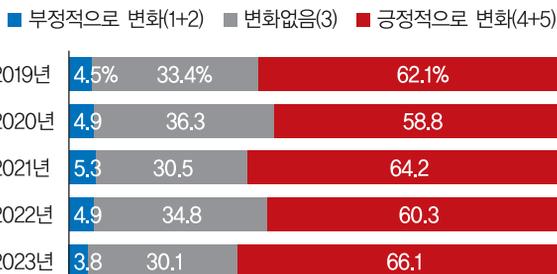
하지만 한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높아졌다. 한류의 부정적인 인식에 공감한 응답자는 32.6%로 전년 대비 5.5%포인트 증가했다. 주요 사유로는 ‘지나치게 자극적·선정적’(24.9%), ‘획일적이고 식상함’(22.0%), ‘지나치게 상업적’(21.1%) 등이 지적됐다.

한류 경험자의 1인당 월평균 한국 문화콘텐츠 소비 시간은 11.6시간으로 파악됐다. 국가별로는 인도(18.6시간)·태국(18.4시간)·인도네시아(17.0시간)·베트남(16.4시간) 등의 순으로 평균 소비량이 많았다. 반면 일본(4.4시간)·캐나다(5.8시간)·호주(6.2시간)·이탈리아(6.3시간) 등은 월평균 10시간 미만이었다.

‘오징어 게임’, 가장 선호하는 한국 드라마 3년 연속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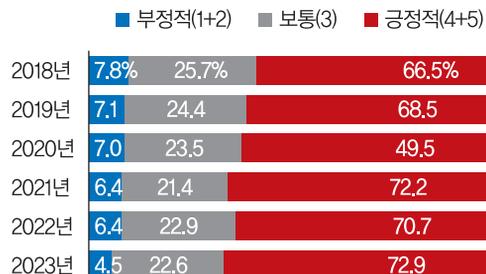
가장 선호하는 한국 드라마로는 ‘오징어 게임’이 3년 연속 1위에 올랐다. 뒤를 이어 ‘더 글로리’(3.4%)와 ‘킹더랜드’(2.6%)가 각각 2, 3위에 꼽혔다. ‘오징어게임’은 유럽(23.7%)과 미주(8.3%)

한국 문화콘텐츠 경험 후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 (2019~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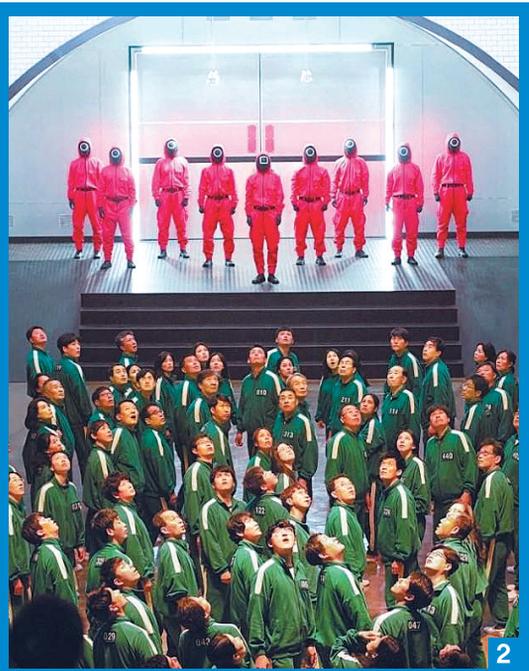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한국에 대한 전반적 인식 (2018~2023)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1.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콘서트 'BTS: Yet to Come' (쿠팡플레이 제공)
 2.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한 장면(넷플릭스 제공)

를 중심으로, '더 글로리'는 아시아·태평양(5.4%)에서 인기를 끌었다.

한국 영화는 5년 연속 '기생충'(7.9%)과 '부산행'(6.0%)이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기생충'은 유럽(10.7%)과 미주(12.6%)에서, '부산행'은 아시아·태평양(8.2%)에서 꾸준히 사랑받았다. 이는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 유통된 기존 작품들의 세계적 선호가 지속된 가운데 이를 능가한 화제작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민호(6.4%)는 한류스타 항목 조사가 시작된 이래 배우 부문에서 11년 연속 1위를 달렸다.

가수(그룹) 부문에서는 방탄소년단(29.1%)이 6년 연속 1위, 블랙핑크(13.1%)가 5년 연속 2위를 차지했다. 솔로 활동으로 성과를 거둔 방탄소년단의 정국(2.7%)과 블랙핑크의 리사(1.4%)는 각각 4위와 7위에 꼽혔다.

한류 경험자 절반 "한국산 제품·서비스 구매 의향"

이번 조사에서는 한국산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 살펴봤다. 한류 경험자의 절반가량(50.7%)은 '향후 한국산 제품·서비스를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전년 대비 3.4%p 증가한 수치다.

국가별로는 이집트(75.6%)·사우디아라비아(73.0%)·아랍에미리트(72.9%)·베트남(72.1%)·인도(70.7%) 순으로 중동 국가와 아시아 국가의 관심이 높았다. 이와 달리 '구매 의향 없음' 비율은

일본(41.7%)·이탈리아(20.4%)·스페인(20.8%) 순으로 높았다.

제품·서비스별로는 식품(64.7%)이 가장 높았으며, 한국 방문(61.8%)·한국 음식점서 식사(61.4%)·한국 화장품(54.0%)·한국 의류 구매(52.8%) 등의 소비 의향이 높았다. 또한 응답자 57.9%가 한류가 한국 제품·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해 K-콘텐츠 소비가 연관 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인도네시아(81.4%)·베트남(78.6%)·사우디아라비아(74.5%)에서 높게 나타났다.

문체부, K-콘텐츠 해외진출 확산 위해 다양한 사업 추진

문체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K-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확산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해외비즈니스센터를 25곳으로 확대하고 일본에는 콘텐츠 기업이 입주할 기업지원센터를 신설한다. 아울러 한국 문화 상설 홍보관 '코리아(KOREA)360'을 UAE 두바이에 개설할 예정이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K-박람회'를 개최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한류의 인기가 높으면서 연관 산업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K-콘텐츠를 집중적으로 홍보한다면 콘텐츠 수출과 함께 연관 산업의 수출까지 배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세계 26개국의 한국 문화콘텐츠 경험자 2만5천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10~30일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창**

이은정 연합뉴스 문화부 기자

미국 한인 배우 겸 감독 아널드 전, 한국전쟁 소재 영화 제작

한인 2세... 단편 '전쟁의 아이들' 출연할 한국계 아동 공모

미국 할리우드에서 배우 겸 감독으로 활동하는 한인 2세 아널드 전(한국명 전효공·48) 씨가 최근 한국전쟁을 소재로 한 단편 영화 제작에 나섰다. 재미동포 사회에 따르면, 전 감독은 어린이의 시선에서 한국전쟁을 바라보는 영화 '전쟁의 아이들'(Children of War)을 제작하기로 하고, 영화에 출연할 한국계 아동을 공개 모집하고 있다.

전 감독은 4월 말까지 미숙과 영일, 성모와 정민 등 4명의 배역을 담당할 5~10세 한국계 아동의 오디션 참가 신청을 받는다. 아동은 모든 배역에서 한국어를 구사할 줄 알아야 한다. 영화 촬영은 올해 여름 중에 이뤄질 전망이다.

할리우드 영화 '더 이퀄라이저'와 '네이키드 트루' 등 제작에 참여한 토니 엘드리지가 총괄 프로듀서로 참여한다. 전 감독은 12년 전 한국전쟁 생존자인 부친 앤드루 전(한국명 전영일) 씨의 경

험담을 처음 듣고, 언젠가 영화로 만들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미국 메사추세츠 보스턴 출신인 전 감독은 어바인 캘리포니아 대학(UC어바인)에서 역사학을 전공했다. 그는 배우로서 '키딩', '빅뱅 이론', '하와이 파이프 오', '필라델피아는 언제나 맑음' 등에 출연했다. 그가 출연한 아마존 오리지널 시리즈 '높은 성의 사나이'는 미국 4대 시상식 중 하나인 에미상을 수상했다.

영화 제작자로서는 2007년 로스앤젤레스(LA) 한인 타운에서 주류점을 운영하는 흑인의 이야기를 다룬 '엘리스 리큐어 스토어'를 선보여 이듬해 '할렘 국제영화제'에서 최우수 단편 영화상을 받았다.



미국 한인 2세 배우 겸 감독 아널드 전

방한 러시아·카자흐 고려인 무용단 “한국인 핏줄 자랑스러워”

고려청년학교 무궁화무용단 12명·비둘기무용단 10명 한국무용 연수

한국무용을 배우기 위해 최근 나란히 방한한 러시아 및 카자흐스탄 무용단 소속 고려인들이 입을 모아 “우리는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다. 한국인 핏줄이라는 게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번 방한한 무용수들은 러시아 로스토프나도누한국교육원에 등록된 한글학교인 고려청년학교의 무궁화무용단(단장 최이리나) 단원 12명과 카자흐스탄 알마티고려민족중앙회 산하 예술단인 비둘기무용단(단장 김림마) 단원 10명으로 대부분이 고려인이다.

무궁화무용단은 3월 26일, 비둘기무용단은 3월 30일 각각 입국해 서울에서 머물며 경복궁과 명동, 국립중앙박물관 등을 찾아 한국문화를 체험했다. '2024 해외 동포 및 국악단체 초청 연수 사업'에 선정된 이들은 4월 2~11일 전남 진도의 국립남도국악원에서 한국무용 연수를 받았다. 무궁화무용단은 버꾸춤·가야금·태



한국무용을 배우기 위해 방한한 러시아 고려청년학교 무궁화무용단

평소 등을, 비둘기무용단은 우도설소고춤을 각각 배웠다.

최 이리나(48) 단장은 4월 1일 서울에서 언론과 만나 “2022년부터 매년 한국에서 사물놀이와 소고춤, 난타, 진도북춤을 배웠는데 단원들의 만족도가 높아 올해도 오게 됐다”며 “한국무용을 배워서 현지에서 공연하면 고려인 및 현지인들의 호응이 높다”고 말했다.

무궁화무용단은 2019년 2월 러시아 남부 도시 로스토프나도누에서 창단했고, 현재 약 60명의 단원이 활동하고 있다. 주 3회씩 연습하면서 고려인 및 현지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공연 무대에 올라 한국무용과 전통무용을 선보인다.

비둘기무용단은 고려인 2세 김림마(78)가 1989년 창단했다. 7~17세에 해당하는 고려인과 카자흐스탄 및 러시아인 약 50명이 단원으로 활동한다. 현대 무용을 위주로 공연하지만, 한국의 전통 무용도 많이 선보이는 편이다.

아프리카·중동한인회총연합회, '제5회 최재형상' 수상

독립운동가최재형기념사업회, 국립서울현충원서 시상식

아프리카·중동한인회총연합회(아중동한인회총연합회, 회장 김점배)가 한인 동포와 아프리카·중동 현지인들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며 지역 사회에 헌신한 기여를 인정받아 '제5회 최재형상'을 받았다.

재외동포사회에 따르면, 아중동한인회총연합회는 지난 3월 사단법인 독립운동가최재형기념사업회(이사장 문영숙)가 시상하는 '제5회 독립운동가 최재형상' 단체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사업회 측은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한인회를 이끌면서 동포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며 아중동한인회총연합회가 국외에서 이른바 '폐치카 정신'을 실천하는 단체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최재형상은 러시아 연해주에서 독립운동한 최재형(1860~1920·러시아 이름 '최 표트르 세묘노비치') 선생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2019년 제정된 상이다. 러시아어로 '난로'라는 뜻을 지닌 '폐치카'는 최재형 선생의 애칭이다. 그의 나라 사랑 정신과 민족 정신, 나눔과 봉사, 헌신, 노블레스 오블리주 등을 상징한다.

김점배(67) 연합회 회장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최 선생의 정신을 실천했다고 평가받으니 영광"이라며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 한

인 사회와 열악한 상황에서 살아가는 현지인들에게 좀 더 나눔을 실천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인다"는 소감을 밝혔다.

아중동한인회총연합회는 그간 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을 위한 개인(開眼) 수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시설을 만드는 '평화의 샘물' 사업, '난민 돕기 운동' 등을 진행해왔다. 아울러 아프리카 중동 재외동포 문화사절단 초청 및 방문 교류사업, 재외동포 관련 유관 기관 사업 참여 등도 벌이고 있다. 올해는 세계 각국 교과서에 한국 발전상을 수록하는 재외동포청의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최재형상 시상식은 4월 3일 오전 10시30분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최 선생 순국 104주기 추모식과 함께 열렸다.



최재형 선생 순국 104주기 추모식 및 최재형상 시상 안내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신임 한인회장에 '이민 2세' 어중수 씨

"한국인 정체성과 한국문화 간직... 젊고 활기찬 한인회 만들 것"

뉴질랜드 남섬 최대 도시 크라이스트처치의 한인 사회에서 33년 역사상 처음으로 이민 2세인 30대가 신임 회장에 당선됐다. 크라이스트처치한인회는 최근 리카턴 침례교회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단독 입후보한 사이먼 어(32·한국명 어중수) 씨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해 어씨를 제17대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크라이스트처치한인회는 크라이스트처치와 캔터베리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위해 1991년에 설립됐다. 대외적으로는 한인 사회를 대표하며, 대내적으로는 한인단체들과 함께 한일을 위한 행사와 사업을 벌인다.

어 신임 회장은 "이민 2세대 한국계 뉴질랜드인으로서 한국인의 정체성과 한국 문화를 간직하며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한국과 뉴질랜드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

다. 그러면서 "어리고 사회 경험이 부족해 한인회를 잘 이끌지 걱정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시대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앞서 나가는 조직을 만들고 싶다. 젊고 활기찬 한인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크라이스트처치에서 태어난 어 회장은 뉴질랜드 링컨대 조경학과를 졸업하고, 통신 회사 '투디그리'에서 일하고 있다. 현지 한국 정원을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크라이스트처치 코리안 가든 운영위원회'와 문화 교류 및 인종차별 근절 등을 위한 단체 '인커먼'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어중수 신임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한인회장

근대문화 도시 전북 군산시 건축물로 역사 탐색해보다



전북 군산시에는 일제강점기 건축물을 포함해 근대문화를 더듬어 볼 수 있는 공간이 많다. 구도심에는 옛 군산세관 본관과 은행 건물, 뜬다리부두가 가까운 거리를 두고 몰려있다. 그 때문에 찾아가기도 쉽다. 인근에 있는 군산근대역사박물관에서 군산의 대략적 역사를 살펴본 뒤 이들 건축물을 차례로 방문했다.

1920년대 도시 이미지화한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군산 내항과 인접한 해방로에는 박물관과 미술관 등 눈에 띄는 건축물들이 잇따라 서 있다. 이른바 ‘근대문화의 거리’로 불리는 곳이다. 이 중 연두색과 갈색의 외관이 특징인 건물이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다. 1920년대 근대도시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디자인이다.

1층 로비에는 군산 어청도 등대 모형이 설치돼 있다. 어청도 등대는 청일전쟁 후 중국 항로의 중요성이 부각돼 1912년에 축조됐다고 안내판에 적혀있다. 역사박물관은 지역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공간이다. 해양물류역사관, 독립영웅관, 근대생활관 등 3층까지 이어진 내부를 찬찬히 둘러봤다.

군산은 고려시대 백성들로부터 거둬들인 세곡(稅穀)을 저장 운

반하는 조운창고(漕運倉庫)가 설치됐던 지점 중 한 곳이다. 군산은 고려 후기 최무선 장군이 왜구를 상대로 벌인 진포대첩에서 크게 승리한 곳으로도 유명하다. 서해와 만나는 금강하구에 위치한 군산의 지리적 이점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빛났다. 세곡을 도성으로 운반하는 조운선과 장삿배, 어선이 왕래하고 상업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근대도시로 발전하는 기틀을 다지게 됐다.

1919년 군산의 3·5 만세운동이 3·1 운동 후 호남지방에서 일어난 첫 만세운동이라는 설명도 눈에 들어왔다. 3층 근대생활관은 1930년대 군산에 존재했던 건물 14채를 재현해 구성한 체험 및 전시 공간이다. 잡화점, 고무신 상점, 주류 상점, 주로 쌀과 콩 같은 곡식을 사고파는 군산미곡취인소도 볼 수 있었다.

옛 군산세관 본관과 근대미술관도 볼거리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을 나와 오른쪽으로 돌아가니 붉은 벽돌 건물이 보였다. 구(舊) 군산세관 본관 건물이다. 1908년 지어진 서양식 단층 건물로,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뒀던 곳이다. 서울역사(驛舍), 한국은행 본점 건물과 함께 국내에 현존

하는 서양 고전주의 3대 건축물 중 하나다. 안내판에는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 현장이었다고도 적혀 있다. 1930년대 군산항은 쌀가마니로 가득했다고 한다. 이곳은 현재 호남관세박물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다음으로 군산 근대미술관을 찾았다. 흰색 외관에 다소 옅은 초록색 지붕을 하고 있다. 건물 입구 한쪽에는 '구 일본제18은행 군산지점', 다른 한쪽에는 근대미술관 현판이 걸렸다. 18은행은 일본 나가사키에 본사를 뒀던 은행이다. 이 건물은 지난 2008년 등록문화재가 됐고 이후 보수 및 복원 과정을 거쳐 2013년 현재의 근대미술관으로 개관했다. 지역 출신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기획전을 열고 있다. 방문 당시 소장품 전시가 열리고 있었다.

근대미술관을 나와 횡단보도를 한 번 건너자 시간의 흔적이 보이는 듯 다소 빛바랜 벽돌 건물이 눈에 띄었다. 옆에서 보면 입구에 사선으로 울퉁불퉁한 기둥을 세워 놓은 것 같았다. 지붕에도 경사가 져 있다. 군산 근대건축관이다. 1922년 지어진 옛 조선은행 군산지점 건물이다. 안내판에 군산의 근대사를 보여주는 상징적 건물로, 일제 강점기 군산을 배경으로 한 채만식의 소설 '탁류'에도 등장한다고 설명돼 있다.

건물 하나하나 방문할 때마다 건물과 사람들이 거쳤을 시대를 자꾸 떠올려보게 됐다. 건축관에 들어서니 확 트인 내부 구조에 놀라움이 앞섰다. 2층 높이인데, 개방감을 크게 느낄 수 있도록 한 구조가 특이했다. 건축관에선 군산의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 여러 건축물에 대한 설명 글을 읽을 수 있고 모형도 볼 수 있다. 이곳에선 건물의 벽체, 기둥, 천정의 일부를 그대로 보존하고 노출해 하나의 전시물로 보여주고 있다.

일제강점기 쌀 수탈의 상징 뜯다리부두

근처에 있는 군산 내항 뜯다리부두로 이동했다. 조수간만의 차로 인해 생기는 부두 기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1938년 완공됐다. 군산항으로 운송된 쌀을 선박으로 옮길 때 사용됐으며 일제강점기 쌀 수탈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시설물이라고 안내판에 설명돼 있다.

이곳에서 차량으로 10분 정도 이동하면 군산 3·1운동 100주년 기념관이 있다. 군산 만세운동의 중요한 축이었던 과거 영명학교의 모습을 재현한 건물이다.

구 군산세관,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근대미술관, 건축관 등은 거리에 다닥다닥 붙어있지 않고 서로 거리를 두고 있다. 하지만, 얼핏 봐도 근대 건축물로 느껴져 주변에서 찾기가 쉽다. 표지판이 있으니 여행 팸플릿 하나만 들고 걸어 다닐 수도 있다. 인근에는 진포해양공원이 있어 볼거리를 추가할 수도 있다.

이들 건축물에는 밤이면 조명이 비쳤다. 구 군산세관부터 시작해 건축관까지 큰 거리에 있는 4개의 건축물에 붉은색, 보라색, 흰색, 연두색 등의 조명이 들어왔다. 낮에는 걸어 다니면서 건축물을 가까운 곳에서 탐색했다. 이때 보이지 않았던 건축물 지붕의 색깔은 야경을 보고자 서 있었던 맞은편 거리에서 선명하게 보였다. 



2



3

1. 군산 내항과 인접한 해방로에 있는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전경. 연두색과 갈색 외관이 특징이다.
2.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안에 전시돼 있는 고무신 상점
3. 밤에 촬영한 호남관세박물관(옛 군산세관)의 모습
4. 일제강점기 쌀 수탈을 상징하는 군산 내항 뜯다리부두



4

재외동포정책실무위 회의, 올해 정책 시행계획 안건 심의

재외동포청은 4월 1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17층에서 제33차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 회의를 열어 2024년 재외동포정책을 뒷받침할 시행계획 안건을 심의했다.

실무위원회는 재외동포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위원장 외교부 장관)에 상정할 안건을 심의하는 회의체로, 지난해 신규 제정된 '재외동포기본법'에 따라 위원장은 재외동포청장이 맡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정부위원과 13명의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회의에서 "기본계획에 따라 최초로 성안 되는 올해 시행계획은 향후 마련되는 연도별 시행계획의 기준점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평가하면서 "재외동포청 개청 1주년이 다가오는 만큼 재외동포의 높은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행계획에 따른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 청장은 "재외동포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외국 교과서 내 한국의 정치·경제 발전상 수록 사업은 ① 재외동포의 정체



4월 1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17층에서 열린 제33차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 회의에서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앞에서 2번째 줄 왼쪽에서 5번째)이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성 함양과 함께 ② 거주국 내 지위 향상이라는 재외동포정책 핵심 목표 2개를 동시에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③ 한류문화 확산 기여 ④ 자체적 브랜드가 부족한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1석 4조의 핵심적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단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4년 재외동포정책 시행계획'은 지난 1월 확정된 5개년 중장기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

본계획'(2024~2028년)에 따라 마련됐다. 정부는 기본계획의 구체적인 실행과 이행력 제고를 위해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의 5대 정책목표(재외동포정책 강화 체계 확립,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국격에 걸맞은 동포 보호·지원 강화, 한인 네트워크 구축, 글로벌 중추 국가 실현 기여)에 맞춰 총 17개 중앙행정기관의 89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이번 재외동포실무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한 시행계획은 추후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21개 재외공관서 동포 청년 인턴십 진행

재외동포청은 차세대 재외동포 청년들의 국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역량 강화를 위해 '청년 인턴 사업'을 시행한다. 최근 동포사회가 세대교체로 차세대 중심으로 바뀌는 상황에서 이들을 국가의 유형자산으로 인식해 육성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 청년의 국정 참여 경험을 통해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고 모국과의 유대감 강화와 거주국과 모국 간 가교 역할 수행을 증진하기 위해 인턴십을 마련했다.

4월부터 6개월간 진행되는 인턴십에는 미국·일본·캐나다·독일·카자흐스탄 등 13개국의 21개 한국 재외공관에서 24명의 청

년이 참여한다. 이들은 거주국 재외공관별 상황에 따라 정부·경제·영사 서비스·홍보·문화 사업 등을 수행한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인턴십은 재외동포 정책의 핵심 목표인 차세대 동포의 정체성 함양과 주류사회 진출의 실현을 위한 사업"이라며 "유능한 청년들이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년 재외공관 동포 청년 인턴십 소개 포스터(한상넷 제공)

CIS 지역 고려인 교사 초청해 한국어 연수

재외동포청 산하기관인 재외동포협력센터(센터장 김영근)는 CIS(독립국가연합) 지역 고려인 한국어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오는 7월 초청 연수를 시행한다. 이 연수는 고려인 교사들의 한국어 능력 및 교수법을 강화하고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도모해 현지에서 한국어와 한국 역사·문화 등을 잘 가르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참가자들은 오는 7월 5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한국어 능력별 교육, 교수법·역사 특강, 한국문화 체험 등에 참여한다. 센터는 왕복 항공료 및 연수 기간 체재비 등을 전액 지원한다. CIS 지역 한국어 교사로 2년 이상 일한 현직 고려인을 우선 선발하며 비고려인의 경우도 일부 선발한다.



'2023 CIS 지역 고려인 교사 초청 연수' 참가자들이 서울 경복궁에서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재외동포청 추천 도서



마이너 필링스(이 감정들은 사소하지 않다)

미국 한인 캐시 박 흥 씀 / 노시내 번역 / 마티 출판

한국계 미국 이민자 2세 작가 캐시 박 흥(48)이 쓴 자전적 에세이다. 저자는 은근하게 계속돼 끝내 내면화된 차별과 구별 짓기가 한 개인의 마음속에 어떤 감정들을 남기는지 파고든다. “내 우울증은 가상의 틱 장애와 함께 시작되었다”라는 구절로 시작하는 이 에세이는 저자가 여성으로서, 그리고 소수인종으로서 미국에서 경험한 이중의 차별 이야기를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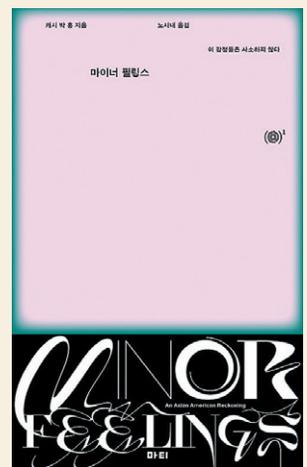
저자는 “어린 시절부터 백인의 환심을 사도록 양육되고 교육 받았으며, 환심을 사려는 욕망이 내 의식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었다”고 토로한다.

또한 “부모가 백인 성인에게 아이처럼 굴욕을 당하는 장면을 수없이 목도했다”고 밝힌다. 영어를 할 때 한없이 쪼그라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저자는 어린 나이부터 엄마를 보호해야겠다는 책임감이 싹튼다. 그렇게 차별, 배제, 소외 등으로 이뤄

진 미국 내 인종차별은 저자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와 지속해서 영향을 미쳤다.

저자는 “미국 사회에 만연한 차별 프레임 속에서 백인들로부터 온갖 거친 대접과 욕설을 겪어왔지만, 적어도 그들이 원하는 순종적인 아시아 여성의 역할을 해보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책은 개인적 내용 외에도 인종주의의 역사, 미국 로스앤젤레스 폭동 등 사회·문화적 내용도 전한다. 2020년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 자서전 부문 수상작.





프랑스 한인 미술작가 3명, 생망데 '제2회 한불예술제'에 초청

프랑스에서 주로 활동하는 한인 작가 3명이 파리 근교 생망데에서 열리는 '제2회 한불예술제'에 초청됐다. 한불 문화교류단체 '에코드라코레' (한국명 한국의 메아리·대표 이미아)는 4월 3~13일(현지 시간) 생망데시청에서 '봄이 오는 길'을 주제로 '제2회 한불예술제'를 개최했다. 예술제는 에코드라코레가 한인 작가들의 전시 공간을 마련하고, 이들의 작품 활동을 돕기 위해 기획한 행사였다. 최영웅(40)·김선미(48)·권혁이(40) 등 한인 작가 3명과 프랑스 작가 샤를 벨 등 4명의 작품이 전시됐다. 서양화가 겸 비디오 퍼포먼스 예술가인 최 작가는 파리 외곽 베르사유에 거주하며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베르사유 시립미술학교를 졸업하고, 파리대학 판테온 소르본에서 조형예술 석사 과정을 밟았다. 재불청년작가협회 소속으로 파리에 거주하는 권 작가는 유럽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프랑스 국립미술학교인 앙제보자르에서 아트 전공을 했고, 파리대학에서 조형예술 석사 과정을 마쳤다. 국내 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김 작가는 2000년부터 파리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베르사유 시립미술학교에서 판화를 전공했고, 파리대학에서 조형예술 석사 과정을 공부했다.

'배드민턴 스타' 이용대, 미국 한인들과 배드민턴 대회 첫 개최

배드민턴 스타 이용대(36·요넥스)가 최근 미국 전역의 한인들이 참가하는 '제1회 전미주 배드민턴 대회'를 열었다. 사단법인 이용대배드민턴발전협회(이사장 이용대)와 재미대한배드민턴협회(협회장 김응권)는 4월 6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주 파인브룩 인터내셔널 배드민턴 센터(IBC)에서 이 대회를 진행했다. 이번 대회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워싱턴 DC, 메릴랜드, 버지니아, 뉴욕, 조지아, 뉴저지 등 미국 전역의 한인들이 참석해 열띤 경쟁을 벌였다. 종목은 남자복식과 여자복식, 혼합복식 등이다. 마이클 이 이용대배드민턴발전협회 미국 지사장은 "미국 전역에서 많은 한인이 참석한 이벤트"라며 "이용대 선수가 미국 동포들에게 추억을 만들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용대는 "제 이름을 걸고 미국에서 주최한 첫 번째 배드민턴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렀다"며 "앞으로도 미국 배드민턴 동호인들과 교류하는 행사를 계획하겠다"고 말했다. 이용대는 대한민국 배드민턴 발전을 위해 꿈나무를 육성하고 배드민턴 멘토링, 배드민턴 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2023년 협회를 설립했다. 이번 대회는 협회가 주관하는 첫 행사로, 이용대가 직접 미국을 방문해 대회 참가자들과 시합을 벌이는 특별 이벤트를 마련했다.



재독 호른리스트 김재형씨, 독일 호른 제작사 홍보모델에 위촉

독일 국립 마인츠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종신 부수적인 호른리스트 김재형(35) 씨가 최근 독일의 전문 호른 제작 회사인 콘퍼드사의 홍보모델로 위촉됐다. 한국인 연주자가 독일 호른 회사의 홍보 모델이 된 것은 김 씨가 처음이다. 서울예고 2학년 때 제주국제공쿠르에서 최연소로 3위에 입상하면서 두각을 나타낸 김 씨는 뒤셀도르프 음대와 베를린음대에서 수학하고 뮌헨 음대에서 연주 박사 학위를 받았다. 독일 현대양상블 단원과 전 세계 오케스트라 호른 수석 12명의 양상블인 XII Cornist의 단원이기도 한 그는 유럽과 아시아 무대에서 활발한 연주 활동을 벌이고 있다.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윈스터에 소재한 콘퍼드사는 전문 연주가용 호른을 생산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최첨단 트리플 호른을 개발해 주목받고 있다. 상급자 또는 전문가용 호른으로 널리 알려진 콘퍼드사의 3S 트리플 호른은 무게가 2.25kg로 이전이 풀 더블 호른의 3.6kg보다 훨씬 가벼운 것이 특징이다. 김 씨는 "피아노·현악·성악 부문에서 한국인 음악가가 세계의 톱 랭킹에 들어갈 정도로 인정받고 있지만 금관악기의 경우는 아직도 큰 격차가 있는 상황"이라며 "홍보 모델 위촉을 계기로 한국 금관악기 연주의 지평을 넓히는 데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세계 시민사회의 주축’ 이 될 차세대 재외동포를 잘 교육하려면

꽃 피는 봄이다. 목련과 개나리 등 봄꽃이 꽃샘추위에도 아랑곳없이 모습을 활짝 드러냈다. 곧 온 강산이 형형색색의 봄꽃으로 물들게 될 것이다. 만개한 봄꽃을 보니 앞으로 재외동포 사회 발전의 주축이 될 차세대 구성원들이 문득 머리에 떠오른다. 어떻게 해야 이들이 한국인으로서의 굳은 정체성 아래 훌륭한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을까? 재외동포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30년이 넘도록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을 해온 필자에게는 이게 큰 고민이자 화두다.

그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다. 정체성이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쌓은 업적과 성과는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진다. 그렇다면 차세대 재외동포 정체성 형성의 핵심은 무엇일까? 첫째도 언어, 둘째도 언어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인 한국어가 바로 우리를 규정하는 정체성의 핵심 근간이다.

언어는 소통의 도구로서 한 개인이 사고하고 행동하고 세상과 교류하는 근간이다. 차세대 재외동포들이 한국어와 한글을 쉽게 익히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자 경쟁력이 되도록 해야 한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말이 있다.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능숙한 사람, 가장 한국적인 사람이 가장 세계적인 인재가 될 수 있다. 확고한 정체성에 기반해 차세대 재외동포들이 빈곤, 인권, 환경, 평화 등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아젠다를 선도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차세대 재외동포 교육은 한국어를 중심으로 세계 시민으로서 소양을 함양하는 교육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적, 제도적 지원은 물론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할 구체적 방법이 필요하다. 재외동포청을 중심으로 각국



김중섭
경희대 국제교육원 원장

의 한국교육원과 한국문화원, 한글학교 등 한국어 교육기관과 현지 동포사회가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그런 네트워크를 토대로 할 때 현지 사회에 필요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제도와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 필자가 오래전부터 봉사하고 있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재 한국어 진흥재단의 한국어 교육 관련 노력과 성과(초중고 한국어 강좌 개설 확대 및 교육 지원, 자체 개발 교재 200만 부 판매 및 단독 건물 매입, ‘AP’(Advanced Placement) 시험 한국어 채택을 위한 청원 등)는 그런 면에서 본보기로 삼을 만하다. 차세대 재외동포 교육은 물론 현지 사회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확산에 큰 성과를 낸 사례이기 때문이다.

다만, 해외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교재 등 각종 교육자료와 한국어 교원 등 물적·인적 자원 부족으로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외동포 사회가 수십 년 이상 골머리를 앓아 온 해묵은 문제지만 해법은 간단치 않다. 시대가 급변하면서 과학기술이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세계적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챗-GPT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한국어 교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키는 동력으로 삼았으면 한다. 에듀테크(교육+기술)를 접목해 새로운 차원에서 발전적 해결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소외된 지역의 차세대 재외 동포 교육에도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이어지길 바란다. 그런 노력과 시도, 지원을 통해 차세대 재외동포들이 각자 살고 있는 사회에서 전 인류적 담론 선도과 과제 해결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으면 한다. 더불어 그들의 정체성이자 본질을 이루는 한국어와 한국문화가 전 세계인의 가슴에도 봄꽃처럼 활짝 피어나기를 기대해 본다. **장**

※ 기고자의 주장이나 의견은 재외동포청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청 주요 일정

- 제18회 세계한인의날(10월 5일) 유공 포상 후보자 재외동포 국민 공모(4월 8일~28일)
 - 세계한인차세대대회(4월 30일~5월 3일)
 - 세계한인입양동포대회(5월 21일~24일)
 - 재외동포 차세대 모국연수-한글학교 교사 초청 연수(7월 22일~27일) / 사전 온라인 연수(7월 1일~19일)
- ※자세한 일정 및 내용은 재외동포청 홈페이지(<https://oka.go.kr/oka/>) 참고하세요.

재외동포청 공지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유공 포상 후보자 공모

모국 · 동포사회 발전에 공헌한 개인 · 단체 대상... 4월 28일

재외동포청은 올해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10월 5일)을 앞두고 재외동포 유공 포상 후보자 공모를 4월 28일까지 진행한다.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대한민국 및 동포사회 발전에 공헌한 재외동포 및 국내 유공자로 개인 및 단체가 공모 대상이다.

포상 훈격은 국민훈장, 국민포장, 대통령 · 국무총리 · 재외동포청장 표창이다. 정부 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와 관계없이 훈장은 7년 이내, 포장은 5년 이내, 표창은 3년 이내에 다시 받을 수 없다.

재외동포 및 국민 누구나 후보를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 서류를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필수 의무 사항인 공적 증빙자료 제출 등 자세한 사항은 재외동포청 홈페이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호텔 월드에서 열린 ‘2023세계한인회장대회 및 제17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배효준(일본명 다케모토 다카토시) 아시아파운데이션 이사장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하고 있다.

(www.oka.go.kr)를 참조하면 된다.

추천이 완료되면 모든 후보자의 주요 공적 내용이 포함된 명단을 재외동포청, 대한민국 상훈 및 재외공관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개해 대국민 공개검증을 거친다. 검증과정에서 접수된 의견은 본인 소명,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공적심사위원회 심의에 반영한다. 수상자는 오는 10월 재외동포청과 상훈 홈페이지에 발표한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세계 한인의 날 유공 포상은 2007년 처음 시작된 이래 세계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한 유공자들을 격려해 모국과 동포사회 간 유대를 강화해왔다”며 “이번 공모를 통해 숨은 공로자들이 많이 발굴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4월 재외동포청장 동정

- 1일: 미국 시카고 한인회장 면담 및 오찬(재외동포청)
- 2일: 베트남 외교부 차관 면담 및 오찬(재외동포청)
- 8일: YTN글로벌센터장 면담 및 오찬(재외동포청)
- 11일: 제1차 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 겸 전체회의(재외동포청)
- 12일: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장 면담(송도)
- 15일: 프랑스 리움학교 대표 면담(재외동포청)
- 16일: 병무청장 면담(재외동포청)
- 17일: 이북5도위원회 평안남도지사 면담(재외동포청)
- 18일: 33차 재외동포정책 실무위원회 및 오찬(정부서울청사)
- 22일: 2024년 재외공관장회의 개최식 참석(외교부)
- 23일: 재외동포청-금융결제원 업무협약식 참석(광화문)
- 26일: 2024년 재외공관장회의 오찬 간담회 주제(서울)
- 29일: 세계한인언론인협회 기조강연 및 축사(서울)
- 30일: 2024 세계한인차세대대회 개최식 및 기조강연(서울)



700만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이 하나로 통하는 첫 번째 온라인 세상 코리아넷

코리아넷 회원에 가입하시면 재외동포 민원, 재외동포 단체,
재단 지원사업 등 관련 정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
민원



재외동포
지원 사업



단체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지원



재외동포
뉴스



